

臺灣의 석유정책과 석유산업

I. 일반개요

臺灣은 인구밀도는 높지만 천연자원은 부족한 국가다. '71년 유엔으로부터 축출된 후 Taiwan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과거 20년간 급속한 공업발전을 이루어 왔다. '70년부터 '90년에 걸쳐 공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의 구성비는 15%에서 4%로 감소한 반면, 공업부문은 37%에서 42%로, 서비스 부문은 48%에서 54%로 증가하였다. 또한 실질국민총생산은 '70년의 180억 달러(7,281 억元)에서 '90년에는 1,615억 달러(3,985 양元)로 증가하여, 이기간 중의 연평균 성장을은 9.0%에 달하고 있다. 1인당 GNP도 389달러(15,544元)에서 7,990달러(214,993元)로 증가하였다.

Taiwan의 경제성장에는 국제무역의 증가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무역액은 '70년의 30억 달러(= 국민총생산의 53%)에서 '90년에는 1,219억 달러(동 75%)로 급속히 신장, 세계 제13위의 무역국이 되었으며, 또한 외환준비고도 780.6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흑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Taiwan은 국가재정의 상당액을 오랜 염원인 “본토 수복”을 위해 국방비에 투입, Taiwan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Infra 투자를 실시하지 않았다. '91년의 국가예

산에서도 27.9%를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역수지의 흑자 확대 및 환율의 상승으로 Taiwan의 地價 및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에 따라 획득한 외화(달러)는 泰國,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87년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Taiwan 本島내에서의 Infra 투자계획이 실시되고 있지만, 한편 언론결사의 자유 등 민주화의 진행으로 주민운동과 노동운동도 활발해져 주민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 같은 급속한 Infra 확충계획이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 등도 격렬해지고 있다.

II. 석유정책

1. 에너지 · 석유의 기본정책

Taiwan에서는 석유위기 이후 석탄과 원자력으로 석유의존도를 저하시키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이며 ('90년 93%) 또한 中國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나라와 국교관계 및 통상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항상 유의하고 있다.

'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중동정세가 긴박해지자, 정부는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정하였다. '90년 12월 13일에 개정된 「臺灣의 에너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 (1) 에너지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한다.
 - (a) 국가의 경제 발전 및 수요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 공급계획을 책정한다.
 - (b) 1차에너지원의 다원화와 그 구성비의 적정화, 수입에너지의 장기 안정 공급화와 자국 수송율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 (c) 국내외석유·가스의 탐사·개발 및 필요한 수송·저장시설의 총족을 도모한다.
 - (d) LNG의 수입 확대를 도모한다.
 - (e) 해외에서의 석탄 탐사·개발을 촉진한다. 국내개발에 있어서는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감안하도록 한다.
 - (f)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그 안전성, 환경보전 및 효과에 대한 비용 등을 고려한다. 또한 전원 믹스(mix)를 적정하게 하고, 이를 위해 적정한 예비능력도 유지한다.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운영, 배전 시설등의 증강을 도모한다.
 - (g) 원자력 발전소·핵폐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 (h) 에너지 정책의 자유화는 에너지 산업의 전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유지하면서 행한다.
- (2) 에너지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 (i) 각 에너지의 가격체계는 실제 코스트와 성에너지·환경보호·경제발전·적정에너지구성의 유지 등을 고려한다. 국영기업 또한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 적당한 투자 수익률을 유지한다.
 - (j) 석유제품과 천연가스의 가격은 상호 대체성, 발열효율을 참작하여 설정한다.
 - (k) 전력 가격의 결정은 상이한 시간, 시기의 에너지 공급 코스트를 반영시켜 전력 부하의 평준화를 도모한다. 또한 에너지의 유효이용을 촉진하는 전기요금 시스템을 확립한다.

(3)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 (l) 산업구조 효율을 개선하여 성에너지의 추진을 도모한다. 산업공정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책정하여 성에너지 기술의 침투를 꾀한다.
- (m) 도시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차량의 연비 규제를 강화한다. 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도모한다.
- (n) 건물과 다양한 에너지 소비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기준화하여, 에너지 효율 표시제도를 이행,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 (4) 에너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 (o) 에너지의 탐사·개발·생산·수송·저장·사용·폐기·회수·처리 시의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 (p) 고품질 클린에너지의 도입·생산·이용을 촉진한다.
- (q) 고효율 연소설비·오염방지설비를 채택,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오염폐기물의 삽감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지구온난화와 산성비 등 지구환경문제에 일조한다.
- (5) 에너지 연구개발의 촉진
- (r)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행하여 에너지의 탐사·개발·정제·물류·비축·이용·환경보호·안전·절약에 유용하게 쓴다.
- (s) 태양열·풍력·바이오매스·지열·해양·小水力 등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경제효율을 고려하면서 실용화한다.
- (t) 저공해차용 대체에너지 기술연구의 추진
- (u) 에너지 경제·에너지관리의 연구개발은 에너지 수요의 발전에 맞추어 추진한다.
- (v) 민간의 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제적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을 강화한다.
- (6) 에너지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 (w) 각급 학교에서 에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에너지 절약의 습관을 육성한다. 에너지 경제·기술·관리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 (x)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성에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국영석유기업과 그 기능

臺灣의 석유산업은 수입·정제에서 비축·유통에 이르기까지 국영석유기업인 中國석유공사CPC(*Chinese Petroleum Corp.*)가 일괄 관장하고 있다. 국영 석유기업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i)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을 행한다.
- (ii) 정부의 정책을 실시한다.
- (iii)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킨다.
- (iv) 사기업에 의한 독점·과점을 방지 한다.
- (v) 정부의 세입을 공출한다.

3. 석유규제와 규제완화

臺灣의 석유산업은 CPC에 의해 거의 독점되고 있으며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해외시장 변화에 대응으로써 규제완화 자유화의 방향을 걷고 있지만 그 민영화는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민영 주유소는 '87년 6월부터 허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Taiwan의 투자가에 대해서만 개방된 것이다. 석유제품의 수입에 관해서는 현재 자유화의 예정은 없다. 나프타의 수입에 한해 *Formosa Plastics Group*에 나프타 수입을 허가한다고 하는 약간의 규제완화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향후 주유소의 운영이 외국 석유회사에게까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외국 석유회사가 대량의 휘발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CPC의 정제 독점이 타파될지도 모른다. 현재 민간 소유로 되어 있는 주유소는 약 40%이다. 그러나 휘발유 공급은 CPC가 독점하고 있으며 판매가격도 CPC에 의해 설정되고 있다. '95년까지 제6 나프타 크랙커의 건설이 민간 기업인 *Formosa Plastics*에 의해 계획되어 있는데, 同社는 원료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공장의 건설도 희망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면 정유공장 나프타 크래커 민영화의 제1호가 될 것이다.

4. 석유에 대한 외자참입 상황과 규제 현황

광업법은 '59년에 시행되었다. 대만 내륙의 개발에 관해서는 CPC만이 가능하지만, 해양 개발에 관해서는 외국기업 단체 혹은 CPC와의 합병 형태로 참입할 수 있다. 탐사기간은 4년이 인정되어 있으며, 다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업생산기간은 20년이

지만 이것도 다시 2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로열티는 연간 생산의 10~40%이며, 稅는 과세 총액으로 최고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또한 기계설비에는 수입제세가 면제되며, 과거 5년간의 손실을 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석유정제에의 참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석유제품의 판매도 윤활유·솔벤트에 한정되며, 주유소의 운영 등 연료유 판매에의 참입은 할 수 없다.

5. 석유비축제도와 그 운용

정부는 *Energy Management Law*에 근거하여 CPC에 대해 90일분의 비축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또한 대만전력도 60일분의 비축의무가 있다.

6. 환경정책

臺灣은 특히 석유정제·석유화학·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원자력 발전은 당초 제4원자력 발전소(100만kW 2기)가 '92-'93년 완성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2000년경까지 연장되어 있다. 정유공장의 건설은 어려우며, 2000년경에는 매립지에 신설하려는 구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정유공장의 *Topper* 능력을 약간 증강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유화력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것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석탄 및 천연가스에 의한 발전이 있지만, 석탄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크다.

III. 석유수급

1. 원유수급 실적 및 전망

臺灣의 국내 원유생산은 극히 미미하며 원유공급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89년의 원유 수입량은 41.6만b/d로 이 중 중동의존도는 82%였지만, '90년에는 42.5만b/d로 되었으며, 中東의 존도는 80%였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쿠웨이트의 구성비가 높았지만 이번 걸프위기를 통해 이란·서아프리카·호주 등으로 공급의 분산을 도모하였다. 2000년에도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99%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1) 臺灣의 원유수급실적·전망

(단위: 천b/d, 千㎘, %)

	中 東 (千b/d)	東 南 아 시 아 (千 b/d)	기 타 (千 b/d)	수 입 (千b/d)	計 (千㎘)	국 산 (千㎘)	국 산 수 입 제 고 (千㎘)	변 동 (千㎘)	처 리 (千㎘)
1981	296	86.3	15	32	343	19,879	99.1	183	20,062
1982	277	85.0	15	34	326	18,924	99.3	139	19,063
1983	274	79.2	27	45	346	20,093	99.3	135	20,227
1984	293	83.2	30	29	352	20,420	99.3	136	20,556
1985	245	75.4	44	36	325	18,837	99.4	118	18,955
1986	258	80.6	30	32	320	18,839	99.4	105	18,945
1987	292	83.7	37	20	349	20,233	99.3	148	20,382
1988	283	76.9	39	45	368	21,334	99.3	140	21,474
1989	341	82.0	41	34	416	24,130	99.4	135	24,265
1990	339	79.8	60	26	425	24,684	99.3	182	24,867
1991					407	23,604	99.6	106	23,710
1995					502	29,102	99.5	153	29,255
2000					559	32,413	99.6	126	32,538

자료 : CPC, 경제부 에너지위원회

(표-2) 臺灣의 석유제품 수급실적·전망

(단위: 千㎘, LNG & LPG : 千톤)

油 種		L P G	改質나프타	分離나프타	휘발유	제트·燈油	輕 油	H/S重油	L/S重油	計
90/7~91/6	생 산	373	1,605	3,550	3,219	1,112	4,299	2,564	8,110	24,832
수 입		961	180	212	2,809	101	831		2,666	7,760
실 적	生産+輸入	1,334	1,785	3,762	6,028	1,213	5,130	2,564	10,776	32,592
수 요		1,275	1,751	3,721	5,813	1,091	4,986	2,219	10,734	31,590

<자료> CPC

油 種		L P G	改質나프타	分離나프타	휘발유	제트·燈油	輕 油	H/S重油	L/S重油	計
91/7~92/6	생 산	430	960	3,770	3,820	1,100	4,380	1,360	8,000	23,820
수 입		840	450	120	2,530		70		2,770	6,780
예 측	生産+輸入	1,270	1,410	3,890	6,350	1,100	4,450	1,360	10,770	30,600
수 요		1,260	1,410	3,890	6,300	940	4,810	1,350	10,710	30,670

<자료> CPC

(단위: 百万㎘)

油 種	L P G			휘 발 유	제트·燈油	경 유		중 유
1990年 實績 수요	2,400			5,500	1,000	4,500		11,500
2000年 豫測 수요	2,100			7,800	1,300	6,100		13,400

1990~2000 평균 신장율%	-1.0			4.4	2.8	3.4		2.3
-------------------	------	--	--	-----	-----	-----	--	-----

<자료> 경제부 에너지위원회

2. 석유제품 수급실적 및 전망

'90년도에도 臺灣의 석유제품 수요 약 54만b/d중 99% 이상이 수입되었으며 국내생산은 1% 이하에

불과하였다. 이같은 수입의존 체질과 그 정치적 문제 때문에 에너지공급의 안정 확보에 매우 유의하고 있다. 이번의 걸프위기에서도 그같은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제품수급 펍박 속에서 제품확보를 위해

(표-3) 臺灣의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실적

(單位 : 千KL)

(7月~翌年6月)	운수	공업	상업	건설	농업	발전	기타	계
휘발유	1988	3,884						3,884
	1989	4,574						4,574
	1990	5,227						5,227
등유	1988		11	32			71	114
	1989		7	21			46	74
	1990		11	30			18	59
경유	1988	2,016	169		61	636	53	820
	1989	2,307	184		71	704	248	710
	1990	2,633	183		63	1,018	279	278
중유	1988	115	4,846		108	207	3,829	512
	1989	163	5,669		158	239	5,002	1,954
	1990	158	5,380		112	198	5,013	1,511
항공연료	1988	885						885
	1989	924						924
	1990	1,054						1,054

〈자료〉 CPC

다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90년의 원유처리량은 39.6만b/d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한편 '90년의 제품수입은 8.7만b/d로 전년에 비해 2만b/d 감소하였다.

금후 수요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가 전망된다. 2000년까지 휘발유는 연률 4.1%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중유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에 의한 대체 결과 0.5%의 극히 낮은 증가를 보일 것이다. 석유 수요 전체로는 3.6%로, 과거 5년간의 두자리수 신장에 비해 대폭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수준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석탄이나 천연가스로의 전환 및 원자력의 증강 등이 필요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고조로 이들 탈석유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석유

수요는 계속 상당히 높은 증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3. 부문별 석유수요

수요를 부문별로 본 경우 공업부문과 농림어업부문의 증가에 비해 휘발유·항공용 연료등을 사용하는 수송부문의 증가가 현저하다. 경유에 있어서도 '90년의 실적으로 보면, 합계로는 105.4%의 증가를 나타냈지만 이 중 수송부문의 증가는 114.1%로 높다. 이같은 경향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발전용 중유는 석탄, LNG로의 이행에 따라 거의 제자리걸음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중유 소비에 관해서도 천연가스로의 이행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4) 臺灣의 정제설비 현황과 가동상황

(單位 : 千b/d, 千KL, %)

能力	Topper	리포머	FCC	RDS
能 力	高雄	470.0		30.0
	桃園	130.0	62.5	30.0
	計	600.0	62.5	60.0
90/7~91/7 通油實績		24,340	2,280	1,322
稼動率 (S/D)		77.32	69.53	100.79
				67.97

〈자료〉 CPC

4. 정제설비현황과 가동상황

高雄 정유공장은 50년대 초 2만b/d로 시작하여 현재 6개 Unit 47만b/d의 Topper 능력과 2차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수는 오래된 상태다. 桃園 정유 공장(13만b/d)은 '77년에 완성되어 대북의 휘발유 수요와 桃園 국제공항용 제트연료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CPC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정제능력은 2개 정유공장 합계로 61만b/d이다.

5. 정제설비의 증가, Upgrade

설비증강은 2개 정유공장에서 계획되고 있다. 우선 高雄에서는 '95년까지 10만b/d를 증설하고, 그 대신 제5 Topper(6만b/d)를 폐쇄할 예정이다. 桃園에서는 7만b/d를 증설할 계획이다. 이 결과 합계 능

력은 72만b/d가 된다. 또한 2000년에는 다시 10만b/d를 증강하여 82만b/d로 할 계획이다. 2차 장치에서는 리포머를 '95년까지 6.65만b/d 증강하여 12.2만b/d로, 그리고 2000년까지는 다시 5만b/d를 증강하여 17.2만b/d로 할 예정이다. 또한 FCC는 2000년까지 2.5만b/d 증강하여 5만b/d로 하고, 수소화 분해 장치도 현재의 2만b/d에서 2000년에는 4만b/d로 증강할 계획이다.

2000년경에는 제3 정유공장을 건설하려는 구상도 있지만, 환경문제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CPC는 페트로나스 등과 합병으로 말레이시아의 말레카 제2 정유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PRI(Pacific Resources Inc.)와 공동으로 사라와크에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표-5) 대만의 2차설비 증강계획

		能 力	完 成			
			1991	1992	1993	1994
明 細	No. 3 RDS	30,000 b/d			6月	
	two C5 Isomerization	10,000 b/d				5月
	two T.A.M.E	4,000 b/d				6月
	Olefin conversion	1,416 b/d				9月
	JP-A1/HDS	12,000 b/d	6月			
	Lsr Isomerization	6,000 b/d		6月		
	Diesel HDS	25,000 b/d				6月
기 타	리 포 머 2 基				完 成	
	FCC 檢討中(高雄)					

〈자료〉 CPC

6. 수탁정제현황

수탁정제는 정제능력에 여력이 있을 때에만 행해 왔다. 국내 수요의 증대 결과, 수탁정제는 서서히 없어지게 되었다. '87년에는 5만b/d를 수탁 정제하였지만, '88년에는 2만b/d로 되었으며 '89년에는 수탁정제를 하지 않았다.

'90년에는 오히려 600만배럴을 위탁 정제하였다. 유종은 오만, 알래스카 원유 ORIENTE이며, 상대선은 南西석유, 油公, 모빌(싱가포르), PRI 등이다. 제품은 리포메이트 105.2만배럴, 경유 23.6만배럴, M/S 중유 124.2만 배럴, L/S중유 407.6만 배럴이다.

7. 원유·석유제품의 수출입

제품수출은 기본적으로 국내수급 균형의 결과로서 행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정제설비의 증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8. 석유제품의 품질강화 전망

고급휘발유의 鉛分은 0.15g/ 에서 '90년에는 0.026g/로 삭감되었다. 보통휘발유는 현재 0.12g/이지만, '93년에는 0.08g/로, 그리고 '95년에는 0.026g/가 될 예정이다. 현재 CPC 주유소의 85%에서 무연보통휘발유를, 66%에서 무연 하이옥탄 휘발유를, 합계 90%의 주유소에서 무연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90년의 무연 비율은 19.1% 였다.

(표-6) 臺灣의 석유제품 수출입

(단위: 千톤)

		1984	1985	1986	1987	1990
輸入	LPG	396	379	614	564	987
	JET A1				96	
	나프타	237	670	1,233	510	294
	리포메이트				400	1,872
	라이트·알킬레이트				11	
	輕油	192	188	223	352	698
M/S 重油	M/S 重油	964	332	1,453	1,099	1,905
	計	1,789	1,569	3,523	2,925	5,863
輸出	燈油/JET	128	65	34		
	DIESEL	21				
	H/S 重油	1,075	1,275	726	872	194
	아스팔트	126	226	207	60	45
	石油코우크스				62	13
計		1,350	1,566	967	994	252

〈자료〉 CPC

중유의 유황분은 과거의 3.5%에서 2%로, 그리고 '90년부터는 1.5%로 삭감되었다. 또한 '93년에는 1.0%로, '97년에는 0.5%로 될 예정이다.

고급(프레미엄) 경유의 유황분은 현재의 0.5%에서 '93년에는 0.3%로 낮아진다. 보통경유의 유황분은 현재의 1.0%에서, '93년에는 0.7%로, '96년에는 0.5%로 될 예정이다. 또한, '98년 이후 다시 0.05%까지 낮출 계획이다.

9. MTBE 등 습산소연료 도입 동향

MTBE가 臺灣에서 생산 개시된 것은 '84년의 일이다. '89년 말에 *Taiwan Synthetic Petrochemical Corporation*은 도원에 연간 20만톤의 MTBE 플랜트를 건설하였다. '90년의 MTBE생산은 CPC에 의한 인부틸렌 공급 부족 때문에 8만톤에 불과하였다. 생산된 MTBE는 전량 국내의 휘발유 기재로써 사용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메탄올이 휘발유에 브랜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C가 메탄올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그 수송·저장 및 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탄올의 대량 혼입은 그에 따른 엔진 개발 등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대책상 MTBE 등 함산소연료의 도입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CPC는 현재 Lin Yuan과 Kaohsiung(고옹)에 4,000b/d 능력의 TAME(*Tertia-*

ry-Amyl methyl-Ether) 플랜트 2기를 건설중이며, 이것은 '93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또한 *Formosa Plastics Group*도 그 입지, 시기, 규모 등은 아직 미정이지만, MTBE 플랜트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른 무연화의 추진으로 이를 함산소연료는 육탄 가 향상제로써 점차 사용이 증가될 것이다.

'95년의 MTBE생산능력은 5,250b/d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요는 7,000~9,500b/d로 전망된다. 2000년에 브랜드율을 10%로 하면, 13,600b/d의 수요가 발생한다. 이 경우 수입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휘발유의 수입량에 따라서는 MTBE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IV. 석유시장구조

1. 가격결정 메커니즘

臺灣의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정부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 예전에는 휘발유를 비교적 높게, 그리고 산업용 유종을 낮게 설정하여 왔다. 그러나 그후 점차 국제수준에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품가격의 변경은 수입 코스트의 변경에 따라 CPC가 정부에 대해 신청하며,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결정하고 있다. CPC가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는 제품가격 인하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가격인하가 현재의 석유수요 급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우려도 있어, 이것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가격은 아시아제국(한국, 홍콩, 싱가포르)의 수준을 고려하지만,

(i) 실제 코스트의 반영과 CPC의 장래 발전적 투자를 감안한 적정이윤을 확보하고,

(ii)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iii) 성에너지자를 위해 타에너지 코스트와의 상관관계도 고려하면서,

(IV) 산업발전을 위해 일반 소비자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설정되고 있다.

결프위기시에도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원유·제품 수입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의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한 결과 CPC는 거액의 손실을 떠맡게 되었다. 그 후 결프위기가 종결된 후

(표-7) 臺灣의 석유제품 가격추이

(單位 : 원/L)

	하이옥탄 휘발유	無鉛 보통 휘발유	輕 油	重 油
1986/ 4/30	19.0		11.0	5.90
1987/ 9/17	19.0	19.0	11.0	5.10
1987/12/24	17.0	17.0	10.5	4.55
1988/ 7/ 1	19.5	15.0	10.0	4.00
1988/ 9/ 7	14.5	13.5	10.0	3.80
1990/ 6/ 1	14.5	13.5	10.0	3.80
1990/ 6/29	14.5	13.5	10.0	4.15
1990/ 8/24	18.5	17.5	13.0	4.15
1991/ 5/24	17.5	16.5	12.5	3.95

(표-8) 臺灣의 석유제품 과세일람 ('91. 5. 26. 현재)

(單位 : %)

課 稅 對 象	輸 入 關 稅		港利用稅	石 炭 安 定 基 金 ※ 1	消 費 稅	附加價值稅
	一 般	互 惠				
一 般 비 울	C I F	C I F	C I F	C I F	※ 2	小賣價格
1 原 油	5.0		0.5	0.5		5.0
2 重油(一般用)	5.0		0.5	0.5	3.0	5.0
2 重油(發電用)	2.5		0.5	0.5	3.0	5.0
3 燈油·JET	40.0	20.0	0.5		50.0	5.0
4 LPG	10.0	7.5	0.5		7.5	5.0
5 LNG	7.5		0.5		2.0	5.0
6 휘 발 유	40.0	20.0	0.5		60.0	5.0
7 輕 油	40.0	20.0	0.5		50.0	5.0
7 가 스 오 일	20.0	15.0	0.5			5.0
8 솔 벤 트	15.0		0.5		10.0	5.0
9 潤 滑 油	25.0	15.0	0.5		0.0	5.0
10 나 프 타	20.0	10.0	0.5		0.0	5.0
11 BTX	20.0	15.0	0.5		0.0	5.0

자료 : 경제부 에너지위원회

*1 : '85년 11월-'91년 6월 기간에 한함

*2 : 국내 정제품 : CPC 판매가격

직접수입품 : CIF+수입관세+항만이용세

*3 : 개정전의 ('90.8.24-'91.5.26) 소비세는 휘발유의 30%, 경유 50%였다.

에는 거꾸로 원유가격 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여, 상승시에 떠맡은 손실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2. 석유가격 · 稅 · 보조금 등의 추이

臺灣에는 크게 나누어 법인세, 자산매각 등에 적용되는 Capital Gain세, 간접세 등 3종류의 과세가 있다. 우선 법인세는 보통 35%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감면조치가 있으며, CPC에는 '88년 이후 최저 수준인 25%가 적용되어 왔다. 다음으로 Capital Gain에 대해 40-60%의 과세가 매겨지며, 다시 부가 가치세가 5% 부과된다. 수입관세도 원유 · 제품 모두 부과되지만 석탄만 비과세로 되어 있다.

'89년 Ministry of Finance에 의해 과세정책은 개정되었다. 개정은 주로 석유제품의 소비세에 관한

것으로 이 법제화에 따라 선진공업국에서의 석유소비세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었다. '90년의 휘발유 소비세는 60%이며, 경유는 50%, 중유는 30%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두 5%이다.

3. 석유제품의 유통기구

臺灣에서는 CPC가 석유의 개발에서 비축 · 수입, 정제 · 수송 ·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독점하고 있다. '87년 6월 1일부터 주유소의 운영에 관해서만 CPC의 독점이 해제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90년 말 현재 CPC 운영의 주유소 수는 558개이며, 민간 소유의 주유소는 378개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유소의 이용자수는 1일 120만명 정도이며, 그 중 60-70%(수요의 30-40%)가 오토바이다. ♦

알아둡시다

통화지표

돈의 流動性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각 나라는 금융관행에 따라 통화지표를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M_1 , M_2 , M_3 세 지표가 있다.

- M_1 : (통화) : 민간보유현금 + 요구불 예금(당좌 + 보통예금)
- M_2 : (총통화) : M_1 + 저축성 예금(거주자 외화예금 포함),
(우리나라에서는 통화관리의 중심 지표로 삼고 있다)

- M_2A : (단기총통화) : M_2 -2년이상 저축성 예금
- M_2B : (단기유동성) : M_2A + 제2금융권 · 단기예금 M_2 의 보조지표로 활용
- M_3 : (총유동성) : M_2 + 보험, 투자신탁사를 비롯 제2금융권에서 받아들인 예수금.

최근 제2금융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M_2 가 시중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으로 통화지표의 개선이 논의됐으나 현행체제로 유지하기로 최종결정

케언즈 그룹 (Cairns Group)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산물교역자유화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수출국 그룹으로 '86년 호주의 케언즈시에서 결성된 이후 케언즈그룹으로 불린다. 회원국은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칠레 · 콜롬비아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태국 · 인도네시아 · 형가리 · 피지 등 14개국이다.

석유사업기금

1979년 7월 2차오일쇼크가 발생한 직후 도입된 제도로 국제원유가의 급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주요 정부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原油와 LPG등 수입석유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금을 징수, 유보하였다가, 필요시에는 국내유가 조정시 완충재원으로 사용하는 기금(석유사업법 시행령 13, 14, 16조 근거)으로 기금 징수액은 국제석유가격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고시된다.